

Sermon of the Week:

Seeing Christ, Dying to Self, Living for Him



Passage: Isaiah 6:1-8 (ESV)

Date: August 17, 2025

Pastor: Dongsuk Chung

While it's important for people to see with their physical eyes, it is even more precious to see with the eyes of the soul and perceive the inheritance that God has given us. In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the servant and the older brother saw the prodigal son only with physical eyes, but the father saw the soul of his son who was lost and found, thus he rejoiced and held a feast. In the same way, Christianity is the opening of the spiritual eyes in order to perceive the eternal world of truth that cannot be seen by the flesh. True blessing is not about pursuing happiness in this world, but having our spiritual eyes opened to know the true kingdom, our true home, and the power given by the Lord.

What then should we see with spiritual eyes? In today's passage, Isaiah points to four things. First, we must see the Lord seated on His throne. Second, we must see who we truly are - as a sinner. Third, we must see that such a sinner has been forgiven by God. Finally, we must know what to do in the world as a forgiven person and to have the faith to respond, "Here am I, send me."

The first thing Isaiah saw with the eyes of his spirit was the Lord seated on His throne: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the Lord sitting upon a throne, high and lifted up" [Isaiah 6:1]. Jesus came as man, became one of us, died, and on the third day was resurrected. He ascended and is now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We ourselves could never ascend to that throne, but because of His death and resurrection, we

now sit with Him in glory. Isaiah saw himself in the Lord, seated with Him. In the same way, we also must see and believe in this Lord seated on the throne—our true King—who lives within us. He is our life, our guide for all our days, and our healer.

After seeing the Lord on His throne, Isaiah saw himself: "Woe is me! For I am lost;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Isaiah 6:5]. He recognized the essence of his sin—his utter unworthiness to stand before God. Likewise, Peter, when he obeyed Jesus' word and cast his net, catching so many fish that it began to break, fell at the Lord's knees and confessed that he was a sinner [Luke 5:8]. This is the deep recognition of our sinful nature, born into sin and death. Without this awareness, we live deceived, thinking that fulfillment comes by effort and happiness, by meeting the right people. But this is nothing more than putting makeup on a corpse—a futile endeavor.

Like Isaiah, when we come to know ourselves as sinners, we also come to experience atonement: "Behold,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 [Isaiah 6:7]. This points to being born again of water and the Spirit. Even if we do not feel anything extraordinary in our bodies, Scripture clearly declares that we died with Christ on the cross and were resurrected with Him. Christ has become for us wisdom, righteousness,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We must receive this truth with our "Amen." Even if we sin or stumble, that is merely the work of the old self. The work of Christ has already purified, resolved, and forgiven everything through His death and He now dwells in us. Therefore, in every circumstance, we must not cling to our feelings, thoughts, or emotions, but trust in the Word of God alone to the end.

When we fix our eyes only on the Lord, we

come to the final confession of verse 8: "Here am I! Send me." Who are we living for today? As beings created in God's image, when we are united with Him, only the resurrected life of Christ dwells within us. The "I" dies, and the life that now lives in me is Christ alone. This is a life lived for the Lord. When we live solely for Him, according to God's original purpose in creating us, then the fruit of selfless living for family, nation, and neighbor naturally follows. When I die daily and Christ alone receives glory, then our homes and workplaces become the church, and the church becomes heaven. God does not look at outward appearance, religion, or education: He looks only for Jesus within. The Lord looks to see if Christ is growing in a person's life, and at the harvest, He will gather His own.

Romans 6:4 tells us that we are raised "in order that...we too might walk in newness of life." This life is not human life but the life of Christ. We must live by this divine life. Thoughts of the flesh, criticism, and words that divide within the church or the home are all the works of Satan. We must not be deceived but put the old self to death and remain in fellowship through the life the Lord has given us. In the last days soon to come, the true church—the body of Christ crucified as one, even if composed of many—will be the only refuge.

Therefore, if there is any conflict or misunderstanding between brothers and sisters, let us repent, and, like Isaiah, hold fast to these four realities: the Lord seated on His throne, the true nature of my sin, my salvation in Christ, and a life wholly offered to God. May we be a people who live with the desire to exist for Him alone.

심니소식

나성교회



심성교회

8월 31일, 2025년

NASUNGCHURCH.NET

70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이사야 6장 1-8절

날짜: 8월 17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사람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종과 형은 탕자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지만,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의 영혼을 보고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보는 것이 곧 기독교입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참된 나라와 고향, 주님이 주신 능력을 아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이사야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 것. 둘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임을 보는 것. 셋째, 그런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보는 것.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영의 눈으로 가장 먼저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입니다. "웃시야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1절)"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가 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좌 우편에 오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분 안에 있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 참

왕이신 주님, 내 안에 계시며 생명이요 평생의 인도자요 치료자가 되시는 그분이 발견되어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후, 이사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5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눅 5:8).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본질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정체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속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죽은 시체에 화장하는 것과 같은 헛수고입니다.

이사야처럼 죄인 된 자신을 알면 속죄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7절)" 이는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몸에 특별한 느낌이 없어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를 짓거나 실수할지라도 그것은 옛 사람의 역사일 뿐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해결하셨으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이나 느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만 바라볼 때 마지막으로 8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님만이 우리 속에 사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 때 비로소 가정과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때, 가정과 직장이 교회가 되고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종교, 학벌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만 찾으십니다. 주님은 인생 가운데 예수가 자라나고 있는지를 보시며 추수할 때에 추수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신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육신의 생각과 비판, 이간하는 말은 모두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고 옛 사람을 죽이며,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끝까지 교체해야 합니다. 곧 다가올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한 사람 같은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의 몸, 곧 참된 교회만이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혹시 형제 사이에 반목과 오해가 있다면 회개하고, 이사야가 본 네 가지 — 보좌에 앉으신 주님, 내 죄의 본질, 구원받은 나, 하나님께 드려진 삶 —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소원을 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담임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 위암으로 수술 준비중에 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송성수 (제인) 자매 - 신장수술과 복강수술이 잘 회복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 이상의 합병증세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추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 한순희 집사 - 아들들(곽민준, 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삼성교회소식

삼성교회 청년부/청소년부 연합 수련회가 지난 8월 15~17일(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주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예수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2장 8-9절의 말씀에 기초하여 청년들과 청소년부 아이들이 구원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지 점검하고 간구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부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 Q.T를 통해 깊이 묵상하고 조별 나눔을 하며 서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교제 시간을 가졌고, 집중적으로 교제하기 위해 타락, 구원, 믿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에는 자유롭게 교제하며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을 누렸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청년부와 청소년부 공동체가 준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여름을 맞이하여 시원한 계곡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잠시나마 어린 시절로 돌아가듯이 순수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청년부 26명과 청소년부 13명, 교역자 2명 이렇게 해서 총 41명이 연합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청년부와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를 위해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찬조해 주신 삼성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삼성교회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위해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삼성교회 청년부/청소년부 일동

주간소식

- 담임 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는 11월 19일 (수)부터 11월 23일 (주일)까지 정동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계시록 말씀 사경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 교우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9월 11일부터 65세 이상 시니어 교우들을 위한 나성 시니어스쿨 가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에 해당하는 각 남녀 선교회 회원들께서는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시니어스쿨 설명 안내지와 신청서를 픽업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와 봉사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주일에는 9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 (9월 1일)은 Labor day 입니다. 9월 2일 화요일 하루 교회 사무실을 Close 합니다.

삼나소식 온라인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교회 삼나소식



<http://samsungch.or.kr/samnanews/>